



어쩌다 수영



지난주부터 수영을 시작했다. 큰아이들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강습을 받고 있었고 막내는 2년 넘게 내 옆에서 따분하게 형과 누나를 기다렸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엄마, 나 그냥 차라리 수영 배울래. 기다리는 거 재미없어."라고 했고 그렇게 막내도 수영을 시작했다.

첫 수업을 다녀오더니 물에 고개 집어넣는 것을 했는데 수영이 너무 재미있다고 하며 수영 가는 날이 제일 좋다고 야단법석이다. 나도 막내와 비슷한 이유에서 수영을 시작했다. 어차피 아이들 수영장 라이드를 해야 하고 이제 막내까지 수영을 시작해서 흑도 떼어냈는데 차 안에서 대기하며 휴대폰이나 들여다보느니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30여 년 만에 어릴 적 내가 다니던 수영장으로 컴백했다. 나는 국민학교 6학년 때 1년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곳에서 수영 강습을 받았었다. 88 서울 올림픽 개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올림픽 수영장 규모와 시설은 국내 최고 수준이었다.

그때 수영을 어찌나 좋아했는지 감기에 걸려 쉬어야 할 때도 고집을 부리며 수영장에 가곤 했다. 나는 물이 좋았다.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기분이 마치 하늘을 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물결을 타고 내 몸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때 기분이 무척 좋았다. 하다못해 수영장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마저 사랑했다. 나중에 중학교에 진학하며 수영을 그만뒀는데 더 이상 내 살갓에서 수영장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할 수 없이 슬펐던 기

역이 난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수영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애석하게도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었다. 물속에서 금붕어처럼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던 나는 온데간데없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뻗뻗하게 움직이는 나만 있었다. 그렇다. 오랜만에 하는 수영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 어쩌다 여행 가서 호텔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이나 아이들 데리고 워터파크에서 하는 수영하고는 차원이 달랐다.

자유수영이다 보니 강사도 없고 앞뒤 사람과의 간격을 고려하며 그저 묵묵히 50미터 레인을 계속 돌아야 하는데 어찌나 숨이 차던지 나는 계속 쉬어야만 했다. 우리 반은 주로 5-70대 분들이신데(내가 당연 최연소) 워낙 수영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 힘을 짝 빼고 천천히 쉬 없이 계속해서 레인을 도는 포스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다.

오후 5시는 성인을 위한 수영 강습은 없고 자유수영반과 노인들을 위한 실버반만 존재하는데 내가 오랜만에 들어온 신입이라 그런가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눈치다.

첫날은 그저 힘끔힘끔 볼 뿐 선뜻 말을 시키거나 인사하는 사람이 없더니 둘째 날은 옆 레인 실버반 어르신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다. 손수 본인이 시범까지 보이시며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조언을 하시는데 조금씩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수영은 운동 특성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셋째 날이었던 오늘은 최대한 눈빛을 피하기 위해 몸을 아예 뒤로 돌린 채 쉬고 있었다. 그러자 지난번에 시범을 보이셨던 어르신이 또 헛기침까지 하며 연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지난번에 예의는 갖추어야 할 것 같아 열심히 경청했더니 눈만 마주치면 한마디라도 더 건네려는 기세다.

최대한 눈길을 피했지만 문제는 내가 쉬지 않고 계속 수영을 할 수 없고 아직은 50미터마다 멈춰 쉬어야 하는 처지이다 보니 대화 대상으로 안성맞춤인 것이다. 수영한 지 30분쯤 되었을 때 그 분과 딱 마주쳤고 아나나 달라 붓물 터진 듯이 또 이런저런 말들을 퍼붓기 시작하셨다. 매번 이런 식이시면 곤란할 것 같아 오늘은 큰 마음을 먹고 "나는 그저 조용히 자유롭게 수영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말만 그렇게 했을 뿐 오늘 수영하는 내내 그 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신경 쓰여서 나는 결코 자유롭게 못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속담을 듣고 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오랜만에 시작한 수영이 아직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상하게 엄청 신경 쓰이네. 아무튼 또 이렇게 어쩌다 시작하게 된 수영, 기왕 시작했으니 하루빨리 30여 년 전 그때처럼 즐겁고 신나게 물속을 헤엄쳐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7일 안에 팔아 드립니다.



풀러튼 단독 주택 \$ 1,099,999

방 4 화 3 2363 sqft 넓은 대지 6532 sqft 풀러튼 Park Vista 커뮤니티에 내집 마련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최고의 학군, 안전하고 쾌적한 동네



부에나파크 타운홈

방 4 화 3 개 1560 sqft. 이층집 2car garage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는 최상의 편리한 위치 저렴한 관리비, 근처 공원과 학교 도보 거리, 투자용으로 아주 좋은 렌트 수입의 매물입니다



풀러튼 단독 주택 \$1,675,000

방 4 화 3 3183 sqft 대지 28692sqft 울드 서니힐즈 라구나호수근처, 풀러튼 시티 전체가 보이는 전망 좋은 집, 마켓에 오래 있지 않을 집 빨리 서두르세요.



라하브라 단독 주택 72만불

방 3 화 2 1200sqft 땅 9877 sqft 많은 포텐셜이 있는 집



풀러튼 단독주택 \$788,500

방 3 화 3 1347 sqft 대지 6750 sqft 별채 만들수 있는 포텐셜 매물입니다



어바인 우드브릿지 타운홈 599천

방 2 화 2 리모델링된 집 마루 바닥, 새 캐비닛, 교통 편리함과 아주 예쁜 단지 안에 위치, 렌트 투자용으로 좋은 매물 서두르세요. 가까운 프리웨이405, 55, toll-roads, UCI, great shopping and restaurants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

최고의 가격으로 집을 팔아 드립니다. 역사상 최고의 셀러마켓!!!
잘 팔고 잘 사드리는 아이비를 찾아 주세요!!!
렌트를 찾으세요? 렌트 비용으로 내 집마련을 하실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리스, 창고 리스 전문
다량의 리스팅 있으니 연락 주세요. 본인의 업종에 맞게 새로 셋업 해드립니다.